


발행일\_ 2016년 11월  
 발행처\_ 웃는책 작은도서관  
 주소\_ 성남시 분당구 노티로73(정자동), 303호 전화 031-702-9622  
 블로그\_ blog.dum.net/smilejungle  
 후원\_ 

2016년 11월 창간호 웃는책 작은도서관 신문

# 웃는책 작은도서관



2007년 야탑3동 주택가 10평의 작은공간에서 시작한 웃는책 작은도서관. "결이서 10분거리 우리동네 사랑방"을 모토로 분당여성회에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2011년 이곳 정자동으로, 2013년 지금 이 자리에 동자를 끌어 맞추어 4년째 걸어오고 있습니다. 8,000여권의 유아, 어린이, 성인도서와 있고 오전에는 성인동아리, 오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미한 큰 희망을 품고, 서로 돕고 함께 나누는 직원들까지 운영되고 있는 이곳, 웃는책 작은도서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용시간**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일·24시는 연상(연말연시)만  
 있으며, 별명(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이용안내** 어린이들은 물론, 활동한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도서대출은 회원가입후 가능합니다.  
 1인 5권 제한, 가족회원권 3인까지 등록하여 총 15권 대출가능  
 대출기간은 기본 2주, 1주 연장가능합니다.  
**할 오전** 화요일은 할아모(책이달남)  
 목 오전 세일제 그림책(책이달남)  
 목 오전 우쿨렐레 동아리(책이달남)  
 목 오전 우쿨렐레 동아리(책이달남)  
 비정기모임(인문학모임, 정명동그림책강사모임)

# 웃는책 작은도서관

#경기도 성남시 #시설공사비 지원

## 마을에 필요한 곳

웃는책 작은도서관은 분당여성회라는 여성단체 부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당여성회는 풀뿌리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전업주부들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마을 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꼭 필요하다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고민의 결과로 2008년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10여 평의 공간에서 도서관을 시작하여 2015년부터 현재의 정자동 공간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웃는책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대해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는 시선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특히 도서관이 있는 동네는 마을공동체의 정신이 살아 꿈틀거리는 곳입니다.

##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웃는책 작은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더운 날 사랑방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신 분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는책 작은도서관은 긴급지원 119사업으로 사랑방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여름방학 중에서도 휴가가 한창인 시기가라 공사 진행 현장을 구경한 도서관 관계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 과정은 미처 보지 못하고, 공사 시작과 마무리 단계만을 본 도서관 활동가들과 이용자들은 사랑방 리모델링 후의 모습을 보고 아주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셨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후 이것저것 집에 있는 도구들을 가져와 채워주시기도 했습니다.

땀방울들이 모여 완공된 사랑방 리모델링은 2017년의 큰 성과가 됐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아졌고, 도서관 봉사자들은 리모델링 과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구조 설계와 자재 결정 등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많은 이용자와 봉사자들은 리모델링 이후 다양한 소품을 기증하거나 사랑방 청소 등을 도우며 도서관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 과정에서 봉사자와 이용자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개진 등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 공사 전



▲ 공사 후 ①



▲ 공사 후 ②

사랑방은 이제 도서관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 공부를 하는 ‘책이랑 낚낚’이라는 동아리는 동아리 모임을 한 후, 항상 사랑방에서 밥을 함께 해먹습니다. 육아에 지친 주부들이 아이들과 또래 엄마들과 어울려 밥도 해먹고 그림책 공부도 하고, 아이들은 친하게 놀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느 날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던 도서관 이용자가 중학교 2학년이 되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여전히 도서관 자원 활동가로 함께하고 있

지만, 초등학생이던 아이는 오랜만에 도서관에 온 것이지요. 이제는 천장에 닿을 만큼 키가 크고 어른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아이를 봤을 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처럼 도서관 회원들이 서로 어울려서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서관 활동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웃는책 작은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리모델링된 사랑방을 중심으로 도서관의 환경개선사업을 연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랑방을 다양한 모임의 공간으로 홍보하여 도서관 모임 외에 지역사회 내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당초 현재의 사랑방을 카페 분위기로 만들고 싶었으나, 아일랜드형 탁자와 의자 등의 비용이 예상보다 커서 접이식 탁자로 대체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친환경화장품 모임을 월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후 반찬소모임이나 아동요리 수업 등을 개설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 내에도 개방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2018년, 웃는책 작은도서관의 리모델링된 사랑방을 통해 새로운 소모임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 다면?

그저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더 이상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들 힘내세요!

